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우현경(Hyun Kyung Woo)¹⁾

정현심(Hyun Sim Juong)²⁾

최나야(Naya Choi)³⁾

이순형(Soon Hyung Yi)⁴⁾

이강이(Gangyi Lee)⁵⁾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immigrant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studied with 91 mothers and their children. Language capacity of mothers and children was measured by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sentence comprehension test and two kinds of reading tests. Results showed that mothers' level of comprehension was relatively low but their reading ability was higher than that of elementary school first-grade Korean students. Comprehens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non-immigrant counterparts showed a lower level of language ability. Mother's level of expressive vocabulary, receptive vocabulary and reading ability correlated with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hese results indicate a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mother's low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Key Words :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 여성결혼이민자(marriage immigrant women), 한국어 능력(Korean language ability), 유아 언어발달(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³⁾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⁵⁾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 Sim J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Junghyunsim@naver.com

I. 서 론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총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6.2%에 해당하며, 이는 2007년과 비교해도 13.7%(17,430명) 증가한 숫자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결혼이민자가정은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함께 명백히 다른 두 문화가 공존하며 적응과 통합을 경험하는 가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재 많은 정책적,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 역시 2006년 2만 5천명, 2007년 4만 4천명, 2008년 5만 8천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녀들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6세 이하가 57.1%, 12세 이하가 32.2%로 초등학교 이하의 유아동이 전체의 89.3% 차지하며, 수년 안에 학령기 및 청소년기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 2008).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출신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성인의 시기에 낯선 문화를 가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는 것은 날마다의 삶이자 적응의 필수과정이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어 능력 향상을 가장 높은 순위의 목표 중 하나로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인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요구도 높다(설동훈, 2005; 이순형·문무경·최연실·정하나·이숙정·우현경, 2006). 한국어 능력의 향상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 이웃, 사회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심도 있는 한국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녀양육의 효능감을 높이는 것

과도 관련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언어예절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실생활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나 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문장오류가 많고, 잘못 습득된 표현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표준어보다 지역 방언에 익숙하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읽기와 쓰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특징도 가진다(김선정, 2007). 이러한 특징들은 성인이 외국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체계적 교육을 통해 학습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언어를 습득할 때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어머니들의 적응과정과 함께 최근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자녀들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관련된 부분이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 역시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교육하여 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회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따라서 일반한국가정의 어머니들과 같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부족한 한국어능력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29%만이 자녀와 대화를 충분히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화의 어려움으로는 54.2%가 한국어 능력의 부족을 들었다. 또한 85.3%의 여성이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들 중 66.2%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이순형 외, 2006).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과제를 거의 도와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 역시 한국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의 언어발달에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Ackerman-Ross & Khanna, 1989; Carew, 1980; Furrow, Nelson, & Benedict, 1978; Haith & Campos, 1977; McCartney, 1984)은 어린 유아일수록 언어발달에 미치는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의 영향이 크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어머니가 유아와 언어적 활동에 보내는 시간과 유아의 언어적 성취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Ackerman-Ross & Khanna, 1989), 성인에 의한 일대일 언어적 자극의 양과 질이 영아의 보다 많은 음성화 유도나 언어수행 능력에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aldwin, 2000; Carew, 1980; Haith & Campos, 1977). 또한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의 길이와 문장구조가 1, 2세 유아의 언어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양육자와의 대화빈도가 많을수록 유아가 언어발달검사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Furrow et al., 1978; McCartney, 1984). 어머니의 언어사용이 가정환경과 유아의 언어발달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어머니가 유아에게 사용하는 말의 특성이 언어발달수준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Hoff & Naigles, 2002; Weizman & Snow, 2001). 국내 연구들 역시 발화수가 많은 어머니 일수록 더 다양한 어휘,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며 이러한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이 2세 미만의 어린 영아들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장유경 · 이근영 · 광금주 · 성현란, 2003). 다른 연구들(이혜련 · 이귀옥, 2005; 장유경 외, 2003; Choi, 2000)도 영유아에게 더 많은 양의 언어적 자극을 제공하는 어머니들은 그 발화의 질 또한 높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은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특별히 생의 초기인 취학전 유아의 언

어발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오성배, 2005, 2007; 정은희, 2004; 조영달, 2006b), 외국인 어머니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이 언어발달 지체와 관련되고 결국 학업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여 곧바로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양육을 전담하게 된다. 특별히 모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태도로 인해 어린 자녀에게 매우 빈약한 언어적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구결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만 3에서 만 5세 사이의 자녀 중 68%가 언어발달지체의 가능성을 보였으며(정은희, 2004),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발달지체가 더 크게 나타났다(채혜경, 2008).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낮고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성배, 2005; 조영달, 2006b).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지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안혜령 · 이순형(2009)의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과 같은 학급의 일반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능을 통제하여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수행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지체가 아동의 지능과 같은 내적 요인이나 학습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같은 가정의 양육환경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아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가 된다(전효정 · 이귀옥 · 박혜원, 2004). 따라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고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능력검사서 선행연구와는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최연실(2007)의 결과는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을 세분화하고 언어능력 측정방식을 달리할 경우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령기 아동의 언어적 환경은 어머니 이외에도 또래, 교사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들은 부모가 언어적 환경의 주된 영향요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영유아 연구와 학령기 아동연구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기 자녀들이 보이는 언어발달지체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보완되는 것(김민화 · 신혜은, 2008)으로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언어발달에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영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든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장유경 외, 2003)에 근거해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경향에 대한 타당한 설명일 수 있다. 한편 어휘력과 이해력 등 학습 능력과 관련된 언어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오성배, 2005; 채혜경, 2008)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지체가 연령이 증가하여 학령기까지 학업지체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이야기 구성능력에 초점을 둔 연구(최연실, 2007)는

상대적으로 학업능력과의 관련성이 적어 다른 방향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초기 언어발달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매우 적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논의가 심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취학전 유아의 언어발달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지체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지체가 언어발달의 어떠한 영역에서 나타나는지,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지체가 보완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특별히 현재 일부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일반가정 유아들에 비해 언어발달이 덜 이루어진 지연 상태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지체 상태를 보이는 것인지, 지연과 지체를 경험하는 유아들이 각각 일반가정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과 유아기, 학령기 자녀의 언어발달지체 및 학업지체를 보고하고 있는데, 아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자녀의 언어발달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먼저 연구방법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인이나 남편, 한국어 교사 등 주위 사람의 보고를 통해 조사하거나(이순형 외, 2006), 면담을 통해 구어수준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문해능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체계적인 언어발달 연구 자료가 부족하고, 특별히 어머니와 자녀를 한 쌍으로 함께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문화가정 어

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어교육 수요가 높고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지원요구 또한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의 언어발달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이 어떠하며, 이들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구문이해력, 읽기)은 어떠하며,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취학 전 자녀의 언어능력(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구문이해력, 읽기)은 어떠하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취학 전 자녀의 언어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1)

구 분		인원(명)	비율(%)	구 분		인원(명)	비율(%)
출신국	일본	37	40.7	연령	만 3세	35	38.5
	필리핀	26	28.6		만 4세	31	34.1
	베트남	8	8.8		만 5, 6세	25	27.5
	태국	6	6.6	유아 성별	남	48	52.7
	기타	10	11.0		여	43	47.3
연령	20대	15	16.5	출생 순위	만이	44	48.4
	30-34세	31	34.1		둘째	18	19.8
	35-39세	29	31.9		셋째 이상, 막내	19	20.9
	40대	14	15.4		외동	5	5.5
한국 거주기간	4-6년	25	28.7	월평균 가계 총수입	100만원 이하	13	14.3
	7-8년	32	36.8		101-200만원	50	54.9
	9-12년	30	34.5		201-300만원	15	16.5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4	4.4		300만원 이상	3	3.3
	중학교 졸업	7	7.7	거주지역 (조사장소)	대도시(서울, 경기)	14	7.7
	고등학교 졸업	31	34.1		중소도시	44	42.9
	대학교 졸업	39	42.9		읍면지역	33	30.8
직업	전업주부	69	75.8				
	기타	15	16.5				

녀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고, 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총 91곳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지역에 위치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과거 또는 현재 기관에서 실시 중인 한글교실, 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 부모상담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만 3세에서 6세 초반의 취학전 자녀를 쌍으로 소개받았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현재 국내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측정을 위한 적절한 도구가 없는 상황이다. 유학생이나 외국인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출신국에서의 정규교육경험 또는 한국에서의 정규 한국어교육경험이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속한 언어적, 문화적 맥락과 매우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적절한 평가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능력을 비교하고자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표준화된 아동용 언어발달 검사도구들을 사용하였다.

표현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로는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검사(박혜원·곽금주·박광배, 1996) 중 어휘 소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수용어휘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장혜성·임선숙·백현정, 1995)를 사용하였다. 구문이해력 측정을 위해서는 구문이해력 검사(배소영·임선숙·이지희·장혜성, 2004)

를 사용하였다. 읽기과제는 유아용과 어머니용을 각각 나누어 사용했는데, 유아에게는 단어읽기과제(최나야·이순형, 2007)를, 어머니에게는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김동일, 2000)의 읽기검사를 사용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개인배경 및 가정배경은 어머니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 5쌍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초에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8년 4-5월 중에 각 조사지역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검사와 면접은 연구도구와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학전공 대학원생들이 교육실, 상담실 등 조용한 장소에서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1:1로 실시하였다. 어머니와 유아 모두 네 가지 검사의 실시순서를 무작위로 하였으며, 어머니 면접을 가장 마지막에 실시하였다. 두 명의 조사자가 어머니 조사와 유아조사를 각각 동시에 실시하여 조사시간은 한 가정 당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dow용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의 한국어능력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유아의 언어능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의 언어능

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연구문제1)

조사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어능력 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최소한 첫 자녀가 만 3세 이상이고 둘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경우도 있어 한국 거주기간이 최소 4년에서 최고 12년까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기간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4-6년, 7-8년, 9-12년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거주기간별 세 집단의 한국어능력 측정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측정영역에서 거주기간이 긴 집단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각 영역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현어휘력을 측정한 어휘 검사의 결과, 한국 거주기간이 4-6년인 어머니들의 평균 점수는 14.96($SD=6.31$), 7-8년인 경우 21.25($SD=9.44$), 9-12년인 경우 29.83 ($SD=8.68$)으로 나타났다. 어휘검사에서 지적연령은 원점수를 한국의 연령별 표준화집단 유아들의 점수와 비교하여 산출한 연령이다. 4-6년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4세 중반, 7-8년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6세 후반, 9-12년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9세 중반 정도의 지적연령을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표현어휘력은 그들의 한국 거주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유아들과 비교하여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어휘력을 측정한 그림어휘력 검사의 결과, 한국 거주기간이 4-6년인 어머니들의 평균 점수는 63.64($SD=22.29$), 7-8년인 경우 74.34($SD=25.46$), 9-12년인 경우 96.17($SD=13.42$)로 나타났다. 그림어휘력 검사의 등가연령 역시 한국의 연령별 표준화집단 유아들의 점수와 비교하여 산출한 연령이다. 4-6년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5세 후반, 7-8년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8세 초반, 9-12년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11세 초반 정도의 등가연령을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수용어휘력은 그들의 한국 거주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유아들과 비교하여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이미 모국어에 유창하고 유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어휘력이 표현어휘력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문이해력 검사의 결과, 한국 거주기간이 4-6년인 어머니들의 평균 점수는 23.76($SD=12.09$), 7-8년인 경우 29.25($SD=10.61$), 9-12년인 경우 43.27($SD=10.22$)로 나타났다. 구문이해력 검사의 평균연령 역시 한국의 연령별 표준화집단 유아들의 점수와 비교하여 산출한 연령으로, 4-6년 동안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3세 중반, 7-8년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5세 초반, 9-12년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8세 중반 정도의 평균연령을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구문이해력은 그들의 한국 거주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유아들과 비교하여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력 검사와 비교하여 볼 때, 구문이해검사는 문법적 지식과 문화적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수용어휘검사의 등가연령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읽기검사의 결과, 한국 거주기간이 4-6년인 어

<표 2> 어머니의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능력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구 분	4-6년(<i>n</i> =25)		7-8년(<i>n</i> =32)		9-12년(<i>n</i> =30)		<i>F</i>
	<i>M</i>	<i>SD</i>	<i>M</i>	<i>SD</i>	<i>M</i>	<i>SD</i>	
표현어휘력	14.96	6.31	21.25	9.44	29.83	8.68	16.00***
지적연령	4.54	2.65	6.88	3.65	9.48	2.52	13.99***
수용어휘력	63.64	22.29	74.34	25.46	96.17	13.42	17.20***
등가연령	5.82	2.42	8.25	3.89	11.11	2.29	15.97***
구문이해력	23.76	12.09	29.25	10.61	43.27	10.22	20.61***
평균연령	3.38	2.63	5.16	3.10	8.41	3.56	16.03***
읽기능력	137	56.19	156	54.22	190	43.69	6.46**
학년점수	1.37	.78	1.78	.84	2.28	.86	6.86**

p*<.01 *p*<.001

머니들의 평균 점수는 137(*SD*=56.19), 7-8년인 경우 156(*SD*=54.22), 9-12년인 경우 190(*SD*=43.69)로 나타났다. 읽기검사서 학년점수는 현재 검사대상의 읽기능력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한국의 일반아동이 보이는 수행수준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4-6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1학년 6월, 7-8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1학년 10월, 9-12년 거주한 어머니의 경우 2학년 5월 정도의 학년점수를 보였다. 즉, 조사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읽기능력은 모두 학령기 아동 수준으로 1학년 이상이었으며, 거주기간별 차이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한글이 표음문자여서 읽기 쉽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능력의 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모든 영역에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이 4-6년인 어머니들의 한국어능력보다 7-8년인 어머니들의 한국어능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한 9-12년인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이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연구문제2)

조사대상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능력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만 연령에 따라 3세, 4세, 5-6세로 구분하여 측정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측정영역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각 영역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현어휘력을 측정한 어휘 검사 결과, 원점수의 평균은 3세가 4.91(*SD*=3.28), 4세가 8.87(*SD*=4.29), 5-6세가 12.84(*SD*=3.50)이었으며, 지적연령은 3세가 1세 미만, 4세가 2세 초반, 5-6세가 3세 중반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표현어휘력 검사에서 일반가정 유아들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

수용어휘력을 측정한 그림어휘력 검사 결과, 원점수의 평균은 3세가 17.83(*SD*=10.26), 4세가 33.03(*SD*=17.40), 5-6세가 43.6(*SD*=23.79)이었으며, 등가연령은 3세가 2세 중반, 4세가 4세 중반, 5-6세가 6세 후반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수용어휘력 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일반가정 유아들과 유사한 수행을 보였으며, 특별히

<표 3>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언어능력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구 분	3세(n=35)		4세(n=31)		5-6세(n=25)		F
	M	SD	M	SD	M	SD	
표현어휘력	4.91	3.28	8.87	4.29	12.84	3.50	23.21***
지적연령	.72	1.13	2.07	1.72	3.48	1.96	19.34***
수용어휘력	17.83	10.26	33.03	17.40	43.60	23.79	38.65***
등가연령	2.67	1.47	4.72	2.10	6.90	1.89	32.34***
구문이해력	3.94	5.73	12.32	10.97	21.36	13.06	21.51***
평균연령	-	-	1.41	2.10	3.35	2.50	15.56***
읽기능력	2.03	12.00	6.77	14.27	31.36	31.79	17.30***

*** $p < .001$

다문화가정 3세 유아에게서 나타난 수용어휘력의 지체가 4세와 5, 6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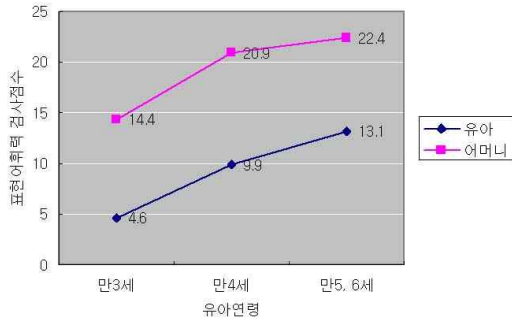
구문이해력 검사 결과, 원점수의 평균은 3세가 3.94($SD=5.73$), 4세가 12.32($SD=10.97$), 5-6세가 21.36($SD=13.06$)이었다. 3세의 경우 수행수준이 매우 낮고, 표준집단이 없어 평균연령을 산출하지 못하였다. 4세가 1세 중반, 5-6세가 3세 중반의 평균연령을 보여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구문어휘력 검사에서 일반가정 유아들보다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어휘 검사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들과 일반가정 유아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구문이해력에서의 차이는 어머니의 경우와 유사하게 문법적·문화적 지식이 일반가정 유아보다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읽기과제의 결과, 단어읽기 점수의 평균은 3세가 2.03($SD=12.00$), 4세가 6.77($SD=14.27$), 5-6세가 31.36($SD=31.79$)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인 최나야와 이순형(2007)의 연구에서 일반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읽기과제 수행한 읽기 점수 평균은 4세가 19.73, 5세가 26.57, 6세가 36.17로 나타났다. 두 연구의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읽기과제에서 일반가정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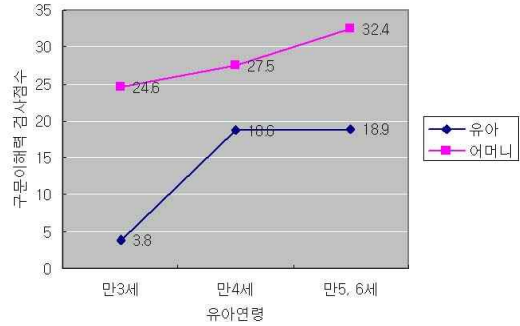
아들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검사 결과의 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모든 측정영역에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세보다 4세의 한국어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5-6세의 언어능력이 더 어린 유아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성별에 따른 언어발달검사 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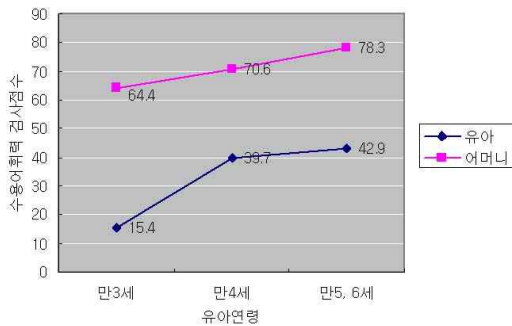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검사 결과와 유아의 언어검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연구대상 유아 중 출생순위가 첫째(외동포함)인 유아들과 그 어머니, 총 49쌍의 자료만을 선정하였다. 출생순위가 첫째인 유아들은 만 3세가 22명, 만 4세가 10명, 만 5세가 17명이었으며, 남아가 24명, 여아가 25명이었다. 어머니들의 한국 거주 기간은 4-6년이 26명, 7-8년이 23명이었다. 조사에서 어머니와 자녀에게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한 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구문이해력 검사의 평균점수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표현어휘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어머니들의 표현어휘력 역시 자녀



<그림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의 표현어휘력



<그림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의 구문이해력



<그림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의 수용어휘력

어머니가 유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더 나은 수행을 보였으며, 특별히 유아는 만 3세와 4세의 점수 차이가 만 4세와 만 5, 6세의 점수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첫째 유아의 언어능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현어휘력에서 만 3세와 4세 이상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2.10, df=2$), 동일한 차이가 수용어휘력($F=12.09, df=2$)과 구문이해력($F=23.97, df=2$)에서도 나타났다.

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어머니의 거주기간이 함께 길어지므로 자연히 어머니의 표현어휘력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용어휘력(<그림 2>)과 구문이해력(<그림 3>) 역시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와 어머니 모두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 검사영역 모두에서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자녀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연구문제3)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자녀의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어머니

<표 4>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자녀의 언어능력의 상관관계

구분		자녀의 언어능력			
		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구문이해력	읽기능력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표현어휘력	.28**	.32**	.22*	.09
	수용어휘력	.15	.22*	.11	-.01
	구문이해력	.15	.15	.09	-.10
	읽기능력	.24*	.22*	.12	.00

의 표현어휘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표현어휘력 ($r=.26, p<.05$), 수용어휘력($r=.29, p<.01$)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수용어휘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용어휘력($r=.23, p<.05$)도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읽기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표현어휘력 ($r=.30, p<.01$) 및 수용어휘력($r=.25, p<.05$)이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구문이해력과 자녀의 언어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의 읽기능력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취학전 자녀의 언어발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구문이해력, 읽기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표현어휘력은 수용어휘력 보다 낮은 수준이며, 구문이해력 수준이 어휘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이 알고 있는 한국어 어휘는 실제로 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구문이해력의 경우 제시문항이 생활문화의 맥락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용적인 표현인 경우, 문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수행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어 학습에 있어 문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김선정,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구문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언어표현과 관련된 한국의 생활문화와 관용적 표현에 대한 내용 및

한국어 문법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교육내용에 반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읽기능력은 대부분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글이 읽기에 용이한 표음문자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동시에 고려할 것이 이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대부분이 출신국에서의 학력을 고졸 이상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이다. 성인 학습자로서 이미 모국의 문자를 읽는 것에 익숙하고 읽기에 요구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을 읽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빠른 시간에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지원기관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적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더 낮은 한국어능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규준과 비교할 때 표현어휘력, 구문이해력, 읽기능력에서 낮은 수행을 보여 일반가정 유아들에 비해 언어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유아기에 언어발달지체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정은희, 2004; 채혜경,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수용어휘력의 경우 만 4세부터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검사결과가 규준에 비해 낮지 않아 다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연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현어휘력, 구문이해력 및 읽기능력에 비해 수용어휘력의 발달지연을 덜 경험하며,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수용어휘발달이 늦은 경향이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출생순위가 첫째인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구문이해력 수행점수가 유아의 점수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역시 주양육자로서 자녀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첫째 유아들의 언어능력을 분석한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언어능력이 만 3세에서 만 4세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약 80%가 만 3세 경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많은 첫째 유아들이 만 3세 경에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양의 질 높은 언어적 자극을 받고, 보육교사 및 또래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만 3-4세 사이에 언어능력의 유의미한 증진이 일어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유아의 언어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 수용어휘력이 만 4세부터 일반가정 유아의 수준으로 증진된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보육시설 경험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ckerman-Ross & Khanna, 1989; Carew, 1980; McCartney, 1984)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발달지연을 예방하고 발달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질 높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읽기능력은 자녀의 언어발달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더 많은 어휘를 알고 사용하는 경

우 자녀 역시 어머니를 통해 더 많은 어휘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구문을 이해하는 능력도 높다.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언어발달 지연현상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특히 어휘력 및 읽기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어머니의 어휘량이 풍부하고 어휘내용이 다양할수록 유아의 언어발달이 촉진된다고 보고한 일반가정 대상의 선행연구(이혜련·이귀옥, 2005; 장유경 외, 2003; Carew, 1980; Choi, 2000; Haith & Campos, 1977)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취학전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해 가장 먼저 증진시켜야 할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어휘력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후에 개발되는 한국어교육 교재와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어휘교육을 꾸준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가 한글읽기에 더 능숙할수록 자녀의 어휘력이 높은 것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이야기책 등을 더 많이, 더 유창하게 읽어줄 수 있어 자녀가 더 많은 어휘를 학습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어휘력 증진을 위해 어머니에게 책읽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책읽기를 통한 상호작용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함께 책을 읽는 동안 어머니가 영유아에게 보이는 피드백, 주의환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등의 상호작용 유형이 자녀의 어휘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지연·이근영·장유경, 2004)를 어머니 교육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언어발달 간 관련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영역별로 평가하여 자녀의 영역별 언어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대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위한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신의 한국어 학습을 통해 자녀의 언어학습을 증진시키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부모자녀 통합프로그램 또는 가족 문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더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못하여 어머니의 출신국가, 어머니의 최종학력, 자녀의 출생순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출신국이나 학력 등의 배경요인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자녀들의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경향을 파악하는 준거자료로 각 언어발달검사의 기준집단을 활용하여 표준화 집단과의 비교는 가능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유아와 같은 맥락에서 생활하는 유아들과의 비교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이지연·곽금주, 2008)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어머니의 영향력과 다른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단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변화와 유아의 언어발달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국어와 함께 모국어를 동시에 유사한 빈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특수

한 이중언어 환경에서 어떠한 언어발달을 보일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들의 적응과 발달을 위한 최적의 교육지원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민화·신혜은(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학회지*, 29(2), 155-176.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423-446.
-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모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안혜령·이순형(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비교. *아동학회지 게재예정*.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2007). 국제결혼 자녀의 교육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22, 186-213.
- 이순형·문무경·최연실·정하나·이숙정·우현경(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방안. *농림부*.
- 이지연·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3), 151-165.
- 이지연·이근영·장유경(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1), 131-146.
- 이혜련·이귀옥(2005).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05-216.
- 장유경·이근영·곽금주·성현란(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4), 227-241.
- 전효정·이귀옥·박혜원(2004). 초기 언어발달에 있

- 어 환경적 영향의 특수성. *아동학회지*, 25(5), 163-178.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영달(2006b).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 채혜경(2008).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문해능력과 가정문해환경.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나야·이순형(2007). 음운론적 인식과 처리능력이 4-6세 유아의 한글 단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4), 73-95.
- 최연실(2007). 도시 국제 결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이야기 능력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08). 2008년 외국인주민실태조사.
- Ackerman-Ross, S., & Khanna, P. (1989). The relationship of high quality day care to middle-class 3-year-olds' language performa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97-116.
- Baldwin, D. A. (2000). Interpersonal understanding fuels knowledge acquisi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40-45.
- Carew, J. (1980).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at home and in day care.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 6-7.
- Choi, S. (2000). Caregiver input in English and Korean : use of nouns and verbs in book-reading and toy-play contexts. *Journal of Child Language*, 27, 36-96.
- Furrow, D., Nelson, K., & Benedict, H. (1979). Mothers' speech to children and syntactic development; some simple relationship. *Journal of Child Language*, 6, 423-442.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in acquiring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Haith, M. M., & Campos, J. J. (1977). Human infanc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8, 251-293.
- McCartney, K. (1984). Effect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of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244-260.
- Weizman, Z. O., & Snow, C. E. (2001). Lexical in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 Effect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65-279.

2008년 12월 31일 투고, 2009년 4월 29일 수정
2009년 5월 7일 채택